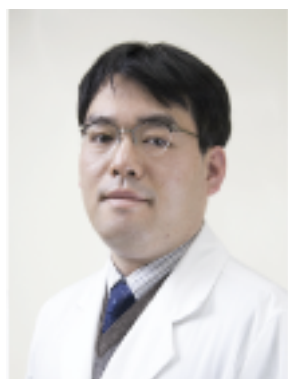




NEWS LETTER

2019년 10월 28일 Vol. 355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비뇨의학회 우수 연제 발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71회 대한비뇨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 발표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PD-L1 발현율에 대한 조사 : 후향적,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PD-L1’은 요로상피암을 비롯해 여러 고형암에 대한 최신 면역치료에서 중요한 표적 단백질이며, 동시에 면역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표지자로서 중요한 단백질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요로상피암에서 PD-L1 발현율에 대한 학회 차원의 공식적인 보고는 지금까지 발표된 적이 없어 이번 수상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형석 교수는 “향후 요로상피암에서 PD-L1 발현율과 면역치료제에 대한 반응도 및 암 생존율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주간행사’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권역호스피스센터(인천, 고양, 파주 호스피스 센터)와 지난 10월 12일 인천대공원에서 ‘제7회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주간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생의 마지막, 아픔은 덜고 마음은 채우고’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홍보 · 상담과 체험 Zone을 통해 OX 퀴즈, 메시지 퍼즐 카드, 완화의료정보 안내를 했으며, 캘리그래피, 아로마 핸드 마사지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서상연 센터장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주간행사를 통해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여성암 환우를 위한 가을 힐링 캠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3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여성암 환우와 함께하는 가을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치료중인 여성암 환자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스님 안내에 따라 봉선사 둘레길을 걸으며 산책을 즐겼으며, 사찰음식 만들기를 체험했다. 또, 봉선사 내 비밀의 숲 포행을 통해 자연을 느끼며 ‘나를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명상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료진과 함께 어우러져 봉선사의 화려한 가을 단풍길을 걸으며, 산새소리와 풍경소리를 듣는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종양환자관리위원장 곽범석 교수는 “암환자들이 자연과 더불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힐링 캠프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양양 낙산사 추계 템플스테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는 최근 1박 2일간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관음성지 낙산사는 671년(신라 문무왕 11년) 의상이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 안에 머문다는 의미로 관음보살이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주면서 절을 지을 곳을 알려 주어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낙산사’라 유래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템플스테이로 조성민 의료원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덕유 스님, 김동일 한방병원장, 권범선 기획처장 등 70여 명의 연우회 회원이 참여했다. 연우회회원들은 낙산사의 역사 체험과 죽비에 맞춰 절을 올리고, 108 염주 만들기 등 명상을 통해 정서적 휴식과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